

긴급속보

**러시아, 한국 목제포장재에 대한 '검역중' 요구**

(사)한국파렛트협회는 지난 3월 31일 국립식물검역소 국제검역협력과로부터 긴급전문을 입수, 회원사 및 파렛트뉴스 애독자들을 위하여 속보를 전합니다. 업무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 파렛트뉴스 편집실 -

**러시아측 목제포장재 검역중 요구관련 서신  
(2000. 3. 22)**

발신 : 주한 러시아 무역대표부 Grigoriy G. Bezyuk

수신 : 국제검역협력과장

2000. 3. 2일자 귀하의 서신과 관련하여 침엽수 및 낙엽수로 만든 포장재가 러시아로 수출되는데 필요한 식물위생증명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러시아 식물검역소로 문의한 결과 식물검역검사소장인 Mr. A. S. Vasyutin으로부터 귀측 서신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침엽수와 낙엽수 포장재를 통해 소나무재선충 및 유리알락하늘소의 유입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 및 유리알락하늘소는 동남아시아의 국가(일본, 중국, 대만, 한반도)와 북미 국가(미국, 캐나다, 멕시코)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 식물검역기관에 식물위생증명서를 요구한다는 사항을 통보하였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식물 검역소에 동 사항을 통보한 것입니다. 효력이 발효되는 시점은 2000. 1. 1일부터 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국가에서 러시아로 수출된 침엽수 및 낙엽수 포장재에 식물위생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을 경우 그 화물은 통관이 보류될 것이며, 아래와 같은 제재가 가해질 것입니다.

- 검역대상병해충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검사 및 실험실 검사
- 화주의 부담으로 MB훈증(또는) 고열건조 처리)
- 도착항에서 러시아내로의 목제포장재 반입금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시시오.

Grigoriy G. Bezyuk

러시아 무역대표부